
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

'23. 2. 22.



보건복지부

순 서

I. 정책 여건	1
II.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	2
1.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	3
2.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	4
3.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	5

I. 정책 여건

□ 초저출생 심화로 인한 소아의료수요 감소

* 합계출산율(출생아수) 급감 : ('12) 1.3명(48만명) ⇒ ('21) 0.7명(26만명)

- 수요 감소와 더불어 비급여 시장 활성화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진료가 대부분인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저수익 구조 고착화

* 소아청소년과 급여진료비 : ('12) 7,161억원 ⇒ ('21) 5,134억원

□ 의사 인력, 의료기관 등 의료자원 감소세 심화

- (인력)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구인난*, 중증소아 진료인력 부족**, 수도권-지방간 인력격차 심화***

*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: ('20) 68.2% ⇒ ('22) 27.5%

**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 : 한국 6.5명 vs 일본 1.7명

*** 전체 소아암 전문의 67명 중 41명 수도권 근무, 2개 시도(강원, 경북)는 없음

- (시설)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증가*, 중증소아환자 치료시설인 어린이병원은 적자 누적으로 운영난** 직면

* 최근 5년간('17~'22) 소아청소년과 의원 61개 감소(3,308개→3,247개)

** A 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적자('19) 연간 135억원

□ 중증환자 상경치료*, 야간·휴일, 응급 등 의료이용 곤란** 사례 빈발

* 소아입원환자 거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진료 비율 : 서울 93.9% ↔ 충북 52.6% ('19)

**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36개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제한 중(연령제한 11개소, 시간대 제한 11개소, 질환 제한 38개소[기관 간 중복 포함]) ('22.12월)

저출생 시대,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의 책임투자 영역
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, 집중 추진

Ⅱ.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

비 전

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

정책방향 및 추진과제

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

- ①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
 -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
 -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
- ② 중증소아환자 치료 기반 강화
 - 상급종합병원 중증소아 진료 강화
 - 소아중환자실 입원 보상 강화
- ③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
 - 중증소아 부모 지원
 - 중증소아 재택치료 확대

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

- ① 야간·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
 -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
 -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
- ②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
 -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
 -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 강화
- ③ 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
 - 지역 병·의원 중심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

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

- ①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
 -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
 - 소아 입원진료 보상 강화
- ② 의료인력 운영 혁신
 - 지역내 전문의 협력진료 활성화
 -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
- ③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
 -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
 - 적정 의료인력 확충

1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

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강화

- (설치 확충) 중증소아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을 위해 **미설치 권역중심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단계적 확대 추진*** [신규]

* (현재) 총 10개소(서울4, 강원, 경남, 경북, 충남, 전북, 전남) → ('23~) 4개소 추가 지정

- (지원 강화) 안정적 운영 여건, 치료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 도입, **시설·장비 예산지원*** 확대 추진 [신규]

* 초기 시설·장비 도입(신규), 필수의료 시설·장비 기능강화(기 지정) 지원

<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('23~25) 주요내용>

- ▶ (대상기관)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(10개소) 중 참여 희망기관 (既 선정, '23.1월)
- ▶ (사업내용) ▲ 중증소아 단기입원·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
▲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 ▲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
- ▶ (성과보상)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

②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

- 소아암 환자, 전문의 분포 기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

* 충분한 치료·관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5개소 우선 육성, 향후 대상 확대

※ (참고) 소아암 신규 환자 발생 규모 : 1,048명('15) → 926명('19)

-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성,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·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협력진료체계 구축

2 중증소아 치료기반 강화

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강화

- (지정기준 강화) 소아응급 및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·평가 예비지표 개선*

* (예시) 24시간 소아응급 제공,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,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

- (의료 질 평가 개선) 소아 관련 중증·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반영 강화*

* (예시)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,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

② 소아중환자실 입원 보상 강화

- 중환자실 필수 장비·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*

*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

③ 중증소아환자 가족 지원 내실화

①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

-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('23)

* ('23.1월~) 칠곡경북대병원(4병상) → ('23.하반기)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(16병상) 추가 확충

② 중증소아 재택치료 지원 확대

-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*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, 진료·간호·재활 및 교육·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확대**('23)

* 생명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등 기계,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

** 서비스 제공기간 확대(18세 이하 → 24세 이하까지), 물리·작업치료 횟수 확대 등

2

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

① 야간·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

①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확대

- 야간·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(달빛어린이병원 등) 확대

-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·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 추진 [보완]

②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지원체계 구축

-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'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' 조속 추진('23.하) **[보완]**

* 증상 상담, 처치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, 응급 및 야간·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병행

②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

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

- 미설치 권역* 중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(8→12개)

* (현재) 총 8개소(서울3, 인천1, 대구1, 경기1, 충남1, 경남1) → ('23~'24) 4개소 추가 지정

②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기능 강화

- (평가기준)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소아환자 진료실적* 반영 강화

* (예) 야간·공휴일 진료, 저연령(만1세·만6세 미만), 중증(KTAS 1-3)환자 가중치 부여

- (관리감독) 24시간 소아진료 의무 위반* 대상 관리·점검체계 마련

* 위반 시 「응급의료법」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(300만원) 부과, 지정취소 가능

③ 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

①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도입

- 지역 병·의원 중심 저연령 아동(36개월 미만)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·교육 시범사업* 추진 ('23)

* 아동 발달,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심층상담·교육 서비스, 주기적 건강관리

3

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

①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 강화

① 소아진료 사후보상

-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 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·확산

②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

-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 확대* [보완]

* (현행) 만 8세 미만 30% 가산 → (개선) 1세 미만 50% 상향, 만1~8세는 현행 유지

-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 수가 가산* 검토 [신규]

* (현행) 입원료만 연령 가산 → (개선)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연령가산 적용

- 병·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(신생아실·모자동실 입원료 30% 인상)

② 의료인력 운영 혁신

① 지역내 전문의 협력진료 활성화

-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 의료수요 대응

②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

- 각종 지정·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 마련
-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*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* [신규]

* 관련 법·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

* (예시) 육아, 일-생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의 확산으로 주2-3회 한시근무,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

③ 적정의료인력 양성 지원

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

- 인력수급 추계 등 검토, 전공의 연속근무(36시간) 등 개선 추진

② 적정 의료인력 확충

-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추진